

대한민국 · 터키, 양국 간 우정과 연대 확인

2023 라크마 우정과 화합 콘서트 성황리 개최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LAKMA Symphony Orchestra & Chorale)이 튀르키예와의 “우정과 하모니”를 주제로 개최한 음악회가 지난 5일, LA 다운타운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음악회는 대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열렸다. 음악회는 베르디의 ‘레퀴엠’을 통해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가와 사회 재건의 소망을 노래했다. 올해 음악회는 ‘어느 때보다 음악적 완성도가 높았고, 예술적 감동과 환희가 가득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혼신을 다하는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럽 오페라에서 활동해 온 튀르키예 출신의 소프라노 부주 한치(Burcu Hanci)를 비롯해 튀르키예 출신의 대표적 베이스 블락 빌지리(Burak Bilgili), 성악가 테너 오위영, LA 오페라에서 활동하는 메조 소프라노 줄리아 멧즐러(Julia Metzler)가 솔리스트로 출연해 음악적 감동을 더했다.



LA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2023 라크마 우정과 화합 콘서트’ ©기독일보

이날 연주회에는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영안 총영사와 튀르키예 총영사관 세인안 크루즈 총영사가 참석해 양국 간의 우정을 확인하고 연대를 다졌다.

김영안 총영사는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1만 5천여 명의 터키군을 보내 우리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했었다”며 “튀르키예 구호를 위한 미주 한인사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미주 한인 사회 음악 문화 발전과 다민족 커뮤니티와 화합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라크마에도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세인안 크루즈 튀르키예 총영사는 “올해 2월 지진 발생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먼저 수색 구조대를 파견한 국가 중 하나이며, 미주 한인 사회도 지진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다”며 “튀르키예 정부와 국민들은 이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뜻깊은 음악회로 양국을 더욱 가깝게 이끌어준 라크마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승호 대표는 “음악을 통해 대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이번 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튀르키예 주민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이 전해지고, 희망을 불드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임상 음악감독은 “인종과 종교, 지역을 초월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할길 소원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윤 감독은 이어 “이번 연주회는 예술적 감동뿐 아니라 튀르키예와 우정과 연대를 나누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악을 통해 사람을 돕는다”(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0년 결성된 라크마(LAKMA)는 미주에 있는 타민족과 연계해 서로의 민족 음악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있다. 라크마는 창단 이후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 왔다. 또 음악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 뿐 아니라 한인 2세, 그리고 타민족에게 한민족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해 겨울에는 음악 인재들을 발굴해 장학금과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중공, 성경 다시 쓰는 것으로 교회 파괴 시도”



201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가디언뉴스 영상 캡처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제리 뉴컴(Jerry Newcombe) 박사가 ‘왜곡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국은 성경을 다시 쓰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4일 게재했다.

뉴컴은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의 용서의 이야기가 공산주의자들이 의

도하는 대로 변형될 수 있다”며 “그들의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이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을 인용했다. 갤러거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성경)을 다시 쓰느라 분주하다. 만일 그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왜곡된 위대한 이야기’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수많은 성경을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의 방해벽으로 온라인에서도 성경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해한다”며 “이제 그들은 감히 성경을 다시 쓰는 것으로 (교회를)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허난성 전역에서 현지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개신교 교회에 십계명을 시진핑의 어록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서구 이념의 침투를 단호히 경계하라’는 식의 지시로 변해갔다”며 “오늘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대량 학살자인 마오쩌둥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그는 종교를 독이라고 불렀고, 중국 공산당은 모든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했다.

갤러거는 “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상상하기 힘든 종교적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초대 교회의 성인들처럼 용감한 지하 교회, 성직자 및 확고한 신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했다.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설립자 겸 회

장인 밥 푸 목사는 “이러한 성경 재번역은 공산당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해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전략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도 성경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경은 초기 미국 역사의 주요 교과서였고, 교육 수준이 높은 대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윌리엄 앤 메리, 프린스턴 대학 및 미국의 다른 위대한 학교가 설립된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뉴컴은 “역사를 통해 폭군들은 성경을 없애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애써 왔다”며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의 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YUNDAI **Getaway Sales Event** **SUMMER SPECIAL SALE**

Lease Special
 2023 **IONIQ 6 SE**
 \$279 10,000 mile/year
 MSRP + TAX \$6,995 due at lease signing
 For 24 Months lease signing
 2023 **IONIQ 5 SEL**
 \$299 10,000 mile/year
 MSRP + TAX \$6,995 due at lease signing
 For 24 Months lease signing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Ioniq 6 SE
NEW 2023 HYUNDAI SantaFe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해바라기

어느 무더운 여름 날
활짝 피어 난 해바라기
하늘의 태양 마주하는 게 좋아
마중 나가네

뜨거운 바람이

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듯
나도 덩달아 기뻐지려하네

-글: 사진: 마가렛 강-

폴 아트 리 작가
개인 전시회 '생명의 빛'

크리스천 미술 작가 폴 아트 리(Paul Art Lee)가 오는 8월 25일(금)부터 9월 1일(금)까지 산타 모니카에서 8번째 개인전을 연다.

폴 아트 리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놓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요한 복음 1장 4절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을 그려 나갔다"고 전했다. 전시장 주소: <bG Gallery>, 2525 Michigan Ave #A2, Santa Monica, CA 90404

동양선교교회의 새로운 영적인 변화

만나교회 <이열치열 부흥회>
"삼손이 그래서 그랬군요"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제가 받은 소송이 18개, 소송을 하신 몇몇 분들이 저와 부목사님의 영주권을 취소시켜서 한 부목사님은 미국에서 추방되기도 했고, 저는 반대측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설교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작년 4월 1일에 하나님이 결과를 뒤집어 주셔서 법정소송이 끝났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고통이 존재하겠는가. 소송 때는 몰랐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니까, 그 아픔과 갈등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더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람을 풀어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뀐다. 우리가 갈등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에서 열린 <이열치열 부흥회>의 8월 6일 강사로 선 LA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는 "삼손이 그래서 그랬군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최근 동양선교교회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나눴다.

"일반적으로 삼손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과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이 의아했다."

"텐버에서 첫번째 유학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 랍비의 성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셈소나이트 가방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은 기회가 있었다. 폴란드계 유대인 몇 명이 모여 가방 가게를 차리기로 하고 텐버에서 처음으로 가방 생산을 시작했다는 히스토리였다. 셈소나이트를 창업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조상이 삼손이기 때문에 그 가방이름을 셈소나이트로 지었다고 했다."

그는 그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삼손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에 유대인 랍비 아이젠바움 교수를 찾아가 물었다.



8월 6일, LA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가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에서 열린 <이열치열 부흥회>의 강사로 서 최근 교회의 변화된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 증거했다.

"삼손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는 압돈. 그에게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었다. 그 당시 블레셋의 다곤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인데, 자식이 많은 것과 나귀를 맞이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신앙적인 분위기였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사들조차 영적으로 타락해 블레셋 다곤 신을 내쫓자고 해도, 누구도 나서서 싸우지 않았고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시대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였다. 장인 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아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묶은 꼬리 안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인다. 꼬리가 뜨거워진 여우들이 온 사방을 다니게 되고, 온 블레셋 들판이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당시 블레셋은 추수기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아 둔 곡식단이, 1년치 식량이 모두 불타버린다. 이것이 삼손의 원래 모습이었다. 그러나 블레셋이 유다 땅으로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그는 이것이 삼손이 완전히 낙담하게 된 계기이며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손의 시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꾸짖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적당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블레셋 사람을 자극하냐'고. 그는 혼자 힘겹게 블레셋 사람 천 명과 싸웠다. 누구도 삼손을 돕지 않았다. 삼손이 큰 희비가 들고 낙담, 절망적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탈진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여자들에게 빠져서 머리가 밀리게 되었다. 이것이 삼손의 자손들이 생각하는 삼손의 일생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의 속 사정을 이해하고,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상관 없는 사람들은 그의 속 사정을 모른 채 마음대로 평가하지만 삼손이 내 가족인 사람은,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그 실상과 마음을 알아준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를 듣고자 하며, 끌어 안고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열왕기상 3:9)' 즉 '듣는 마음'이었다." 주디 한 기자



2022년 진행된 중보기도 축제

새누리교회, 8월 특별 중보기도 집회

남가주에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 새누리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8월 한 달 내내 특별한 집회가 열린다.

새누리교회는 지난 2008년부터 8월이면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중보기도 축제를 주최해 왔다. 올해 중보기도 집회는 8월 6일, 13일, 20일, 27일에 '다시, 하늘이 열리라!'를 주제로 열린다.

교회에 따르면, 집회는 뜨거운 찬양과 박성근 목사의 말씀 선포, 그리고 선교지와 미국, 조국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구성되며 특

히, 이웃을 위한 기도에 집중한다.

2008년부터 중보기도 축제를 인도해 온 박성근 목사는 "이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며, 그들 마음에 응어리진 아픔들이 많은데 그 아픔을 풀 길조차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보기도 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이 축제를 사모한다"고 중보기도 축제의 취지를 전했다.

김민선 기자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CGN LIVE와 함께!

무료 시청



스마트폰에 CGN LIVE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CGN LIVE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앱 또는
앱 스토어에서

CGN LIVE 를
검색 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삼성 (Android)



아이폰 (iOS)



설치문의 :
323-932-1200

추천 프로그램 방송시간 안내(LA시간)

- 새벽기도회 오전 2시 / 오전 5시
- 주일예배 오전 7시 ~ 오후 10시 30분
- 하용조목사의 말씀 오전 3시 5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50분
- 설교말씀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7시 10분 /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10분 /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오후 12시 40분
- 성경읽기 월요일 ~ 토요일 - 새벽 3시 10분 /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오후 11시 40분
- QT(말씀묵상) 새벽 2시 50분 / 오전 6시 / 오후 9시 30분
- 건강체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50분
- 조혜련의 오십소 화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밤 12시 /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에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더불어 사는 삶) 수요일 오전 6시 40분 /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 금요일 00:00 / 토요일 10시 50분



TV로 CGN LIVE 시청하기

남가주 디지털공중파 채널 44.9(디지털안테나 설치)
CGN 시청용 전용수신기 설치 (HD 고화질로 시청가능)



문의 : 323-932-1200 | cgntvusa@gmail.com

마이클 유세프 “성경적 문맹이 적그리스도 세상 만들어”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마이클 유세프(Michael Youssef, 74) 목사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거나, 기독교인에게 성경 지식을 갖추는데 실패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속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아포스톨로스교회의 담임목사인 그는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기독교인들 사이에 점점 더 증가하는 성경 문맹률”을 언급했다.

유세프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와 주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이단들 중 몇 가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민 대화형”을 내세우는 많은 교회들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동성애에 대한 견해와 같은 일부 가르침을 구식이라고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는 이교도 숭배와 관련되어 잘못된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이 주요 강단에서 설교되는 내용”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분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평생 동안 결혼하게 하셨다’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전반적인 창조 사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지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는 1세기 이전의 이단이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덧붙였다.

유세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설교자들은 이제 ‘구약에서 벗어나자’고 말한다. 하지만 구약은 신약이 세워진 기초”라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며,

신약 성경은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말한다. 이 둘은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유세프는 이러한 가르침의 변화가 분별력의 부재로 인해 세상이 적그리스도에 속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상은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세상을 속일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분별력이 없다”면서 “전쟁, 지진, 배교와 같은 종말의 징조는 항상 있어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동원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세프는 가정이 성경 문해력을 확립하

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가 믿음과 가르침 안에서 단합되어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마주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일치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다. 믿음의 공동체, 집에서의 가족, 그리고 여러 가족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함께 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 성경 문맹은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美 청년, 어린이 대상 동성애 행사서 성경 낭독 중 체포돼

7월 29일 미국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에서 열린, 어린이 대상 드래그퀸쇼(보통 여장을 한 게이가 펼치는 공연)에서 4명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던 중 체포됐다.

‘프라이드 인 더 파크’(Pride in the Park)로 알려진 연례 행사의 주최자들은 공원에서 열리는 이 쇼가 ‘가족 친화적’이라고 홍보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마커스 슈뢰더(Marcus Schroeder)라는 한 청년의 체포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1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슈뢰더가 행사장 밖의 공공 보도에서 마이클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경찰관 몇 명이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온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가 소음 증폭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됐음을 알린다.

영상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제이슨 스톰스(Jason Storms)는 위스콘신주 브룩필드에 있는 ‘머시 시트 기독교교회’(Mercy Seat Christian Church)의 선교 목사다. 그는 2일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 딸은 체포된 4명 중 한 명”이라고 알렸다.

스톰스 목사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총 100명 정도)와 함께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에서 열린 어린이 드래그퀸쇼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 사역했다. 경찰은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이들을 체포하는 대신, 내 딸과 사위를 포함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한 네 명의 기독교인을 체

포했다”고 알렸다. 스톰스 목사는 1일 더센티널에 보낸 성명에서 “경찰은 도시 관계자들의 명령에 따라 여러 명의 젊은이들을 체포했다. 한 사람은 행사장 외부의 공공 보도에서 설교를 한 혐의로 그날 늦게 체포됐으며, 불법 증폭 장치 사용 및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또 “속옷을 입은 공연자들이 ‘달러의 비용으로 초대받은 어린이들 앞에서 속옷을 입고 춤을 춘’ 드래그퀸쇼의 보안을 위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공원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행위를 보거나 듣게 하는 것은 F급 중범죄로, 아동이 18세 미만인 경우 H급 중범죄로 간주된다.

슈뢰더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체포는 ‘명예’라고 말했다. 그는 더센티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행동했고 체포됐던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하는 일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것은 실제로 영광”이라고 했다.

더센티널에 따르면, 이 드래그쇼에는 나치 동조자들도 참석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으며, 행사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뢰더는 1일 시의회와 공원에서 열린 드래그퀸 행사에서 나치의 등장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4면에 이어서 계속]

임동선 목사 기념 학술 세미나

故 임동선을 추모하는,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8월 17일(목) 오후 4시, 9월 24일 오후 7시, 10월 21일(토) 오후 7시, 11월 11일(토) 오후 6시에 월드미션대학교와 OMC 동양선교교회에서 진행된다.

8월 17일(목) 오후 4시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리는 기념학술세미나는 “임동선 목사와 WMU의 미래”를 주제로 신선목, 최윤정 교수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9월 24일(주일) 오후 7시에는 월드미

션대학교에서 기념관 개관식이 진행된다. 10월 21(토) 오후 7시에는 OMC동양선교교회에서 기념음악회가, 11월 11일(토) 오후 6시에는 WMU월드미션대학교에서 비전 나눔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동선 목사는 1970년 교인 30명으로 LA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고 2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했으며, 1989년에는 월드미션대학교를 창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했다. 주디 한 기자

美 루이지애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국가 표어가 게시된다.

CBN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법안8(HB8)이 지난 3일부터 각 학교에 적용됐다. 해당 법안은 “주가 관할하는 각 학교와 모든 교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어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최소 11인치x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 문서로 표시돼야 하고, 문구는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또 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인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각 학군은 포스터를 구매하기 위해 자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증된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원법안8은 공립 교육구가 각 학교의 최소 한 곳에 해당 문구를 게시하도록 요구한 기존 루이지애나 법을 개정한 것으로, 과거에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이 아닌 각 공립학교의 한 곳에 문구를 게시해야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의 국가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 ©Pixabay

텍사스도 지난 2021년 동일한 법안을 제정했고, 테네시는 2020년에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외에 아칸소, 켄터키, 사우스다코다, 유타 및 버지니아, 미시시피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국가 표어는 미국 남북전쟁 중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제84차 연방의회는 이를 국가 표어로 선포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1956년 7월 30일 아izen하워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강혜진 기자

2023 우미셸 X 원하트 워십 투어

WORSHIP TOUR



우미셸 목사
만나교회 부목사/찬양인도자
재미 2세 디아스포라 사역자
한국 만나교회 예배인도자

8월 18일 금 7:30PM
감사한인교회 본당

8월 19일 토 6:00PM
주님의영광교회 본당

TICKET \$15
티켓 수익은 디아스포라 미주 지역의 찬양, 문화 사역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됩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사무실 (1391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오프라인 티켓구매 | 감사한인교회 사무실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주님의영광교회 사무실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온라인 티켓구매 | oneheart-usa.com **문의** | 213 347 5080






에스더기도운동 “미국이 다시 거룩해지도록!”

에스더기도운동, 복음통일 컨퍼런스와 통일광장기도회 참석 차 미국 순회



2023년 4월 뉴욕 UN 본부 앞에서 시작된 뉴욕 통일광장기도회 참석자들. ©한기총 제공

에스더기도운동 단체가 미국 순회에 오른다. 8월 14부터 17일까지 달라스에서 개최되는 '제4차 글로벌 복음통일 선교컨퍼런스(The 4th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 Dallas 2023)'를 비롯해 달라스, 아틀란타, 워싱턴 D.C, 뉴욕 등 각 지역별 통일광장기도회와, 8월 25-27일 '미주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참석할 계획이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통일기도 사역이 미국 50개 주 전역으로 확장되고, 또 교포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며, 한편 미국의 영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이 위험하다. 19세기 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을 항복시켜 해방을 가져왔고, 1950년 6.25 전쟁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미국이 신앙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다. 미국이 다시 거룩해져야 할 때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미국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한인 교회가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내년 11월 초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당부하며 "내년 11월에는 북한 동포들이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통일이 될 미국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디 한 기자

[사설] 오늘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의 실체

한국교회가 최근 급격한 교세 감소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대형 교단들의 사정이 더 심각해 보인다. 예장 통합이 9월 총회를 앞두고 교세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교인 수가 230만 2천여 명으로 1년 만에 5만 6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측의 교인 수는 2012년 281만 명대에서 2013년 280만 명대로 소폭 줄었다가 2014년에 281만 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까지 10년간 50만 8천여 명이나 줄었다.

합동 측의 경우도 통합 측의 추세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 측은 공식적인 교세 통계를 9월 총회 때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해 자료(2021년 기준)만 보면 그 전해보다 9만여 명이나 감소했다.

주요 교단의 통계 지표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여타 교단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한국교회는 부흥·성장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1천 2백만 성도를 헤아렸으나 이런 추세로 가다간 교세가 곧 반 토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교인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 측의 경우만 봐도 교회 수가 2012년 8,417개에서 계속 늘어 지난해 9,476개를 기록했다. 10년 사이 1,059개 교회(+12.6%)가 증가한 것이다. 목사 수도 같은 기간 16,853명에서 22,180명으로 5,327명(+31.6%)이나 늘었다.

교인은 줄어드는데 목사 수가 늘어나고 교회까지 많아지는 건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좋게 보면 교회의 사회 저변 확대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겠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교인

없는 교회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많은 교회가 존립 위기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제 채 14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때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서구교회로부터 부러움과 찬사의 대상이 됐다. 영적인 열정으로 이룬 부흥·성장이었기에 영적인 불이 꺼진 지 오래된 서구교회 인사들이 거꾸로 한국교회를 배우러 오는 일까지 있었다. 오늘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런 눈부신 번영이 영구히 갈 것으로 믿었던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다. 한국교회에도 바야흐로 '버블(거품) 꺼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이 완전히 닫힌 서구교회와 비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는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관촬아지겠지 하더니 일상회복이 되고 나서는 내 교회는 그런대로 관촬지 않은가, 또는 내 교회만 아니면 관촬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안일해 보이는 이런 인식에 많은 목회자들이 젖어 있는 이유는 위기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벗어날 방법도 묘안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인지 각 교단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통합 측은 9월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총회 기간중에 목사·장로 1만명이 참석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합동 측도 '살롬부흥'을 기치로 전도, 다음 세대, 출산장려 등 현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교단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교세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처방이 주효할지는 미지수다. 한국교회에 닥친 오늘의 위기가 그동안 대규모 영성집회나 전도운동을 벌이는 데 소홀해서였을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 쪽으로 들어온 교인들이 다른 문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방법이 없다. 저출산이란 사회 구조적인 벽을 탓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럼 교회를 떠나 '가나안'(안나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약 30%의 성도들은 누구 탓인가.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드러난 행실로 교회를 평가한다. 그들 눈에 비친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더 못하기에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는 거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비판하는 게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몫이었다면 지금은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비난이 더 신랄하다. 그래서 더 쓰리고 아픈지 모르겠다. 이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진 데서 온, 즉 교회의 세속화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 밟아래 밟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는 것에 대한 주님의 냉철하신 경고다. 오늘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한 말씀이란 점에서 한국교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3면 '美 청년, 어린이 대상 동성애 행사서 성경 낭독 중 체포돼' 에 이어]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치가 한 일이 끔찍했고, 비판을 받아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세계관에 비춰볼 때, 나치즘은 잘못됐다"고 했다.

슈뢰더는 "토요일 공원에서 내가 한 일은 길가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은 것뿐이다. 사랑에 관한 구절을 읽고 있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다. 단순히 길가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구금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문화에서 성적 부도덕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해짐에 따라, 기독교적 도덕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 도덕을 용납하지 않을수록, 거리에서 불법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기독교적 도덕을 용납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나치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동물의 (진화) 결과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고수하지 않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동물이라면, 우리가 동물처럼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혐오 집단이라고 불렸다. 난 기록을 바로잡고 싶다. LGBTQ 활동가들과 몇 시간 동안 대화했다. 그들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속옷을 입은 채 아이들에게 트윙클을 하는 드래그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이제 내 아이도 5개국어 가능해집니다!"

시골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전국 수십만 수강생을 양성하기까지의 노하우 전격 공개!!

<한글로 5개국어 물려준 엄마이야기> 저자 무료 공개강좌!

40년 벙어리 영어! 자녀 한글학교 최고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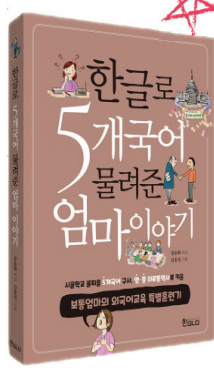
외국어도 모국어 말 배울때처럼 소리로 시작해야 말이 됩니다.

<6개국어, 한글발음에, 소리나는 전자책>

한글로~, 정확히 연음처리 된 한글 발음으로!~

또박또박 10번만 읽어보세요

말문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제2의 삶을 위하여 오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한글로 5개국어 무료 공개강좌

- 1차: 8월 14일(월) 오후 1시~오후 5시까지(저녁식사 제공)
- 2차: 8월 15일(화) 오후 1시~오후 5시까지(저녁식사 제공)
- 3차: 8월 16일(수) 오후 1시~오후 5시까지(저녁식사 제공)
-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참가신청 전화번호: 714-670-8004

장소: 효사랑선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lifornia 90621

한글로영어원장 장춘화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조이스 리, M.D. 메디컬 세미나 참가자 모집!

떡과 선물 증정!



선착순 20명
예약제 모집

주제 경동맥 ✨

일시 8/30 (Wed) 10:00AM

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신청 무료 전화 신청
방법 (714) 519-3024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뉴욕 선교 · 복음화대회, 성황리 폐막

류응렬 목사, “에즈베리 대부흥 주역은 새벽기도 한인 학생들” 권준 목사, “기독교회 답습해선 다음 세대 못 담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연달아 개최한 뉴욕선교대회와 뉴욕할렐루야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기독교일보는 류응렬 목사의 뉴욕선교대회 주요 강의 내용과, 권준 목사의 할렐루야대회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도한다.

류응렬 목사는 뉴욕선교대회 첫날,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Asbury University) 부흥에 대해 증언했다.

류 목사는 “에즈베리 부흥은 믿지 않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이라며 “부흥은 반드시 먼저 나가는 들불 같은 능력이 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평소처럼 예배를 마치고 학생 19명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거룩한 바람이 불자 이들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를 받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결국 1500석이 되는 예배당이 가득 찼다. 2주 동안 24시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드려진 것”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무엇이 이 시대에 이런 부흥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Hunger for God)’이었다. 매일 새벽 5시반,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 기도한 교수들과 목사들이 있었다. 이 대학의 총장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기도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 중에 가장 앞선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일을 통해 일어난 부흥 역사다’ 라고 전했다.

두 번째 집회에서 류 목사는 “한 편의 설교보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

포될 수 있다”며 “영국 교회가 죽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세속주의, 목사들의 안일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강단에 설 수 없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고 경고했다.

류 목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목사만이 예수의 피를 선포할 수 있다. 말씀을 쪼개는 설교자가 아닌 말씀 앞에 쫓겨는 설교자가 되어 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를 받고, 체험된 확신이 있어야 강단에 설 수 있다. 설교자는 태양이 아닌 빛을 반사하는 달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는 전령사”라고 말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을 찢어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한다. 신구약 어느 곳을 증거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설교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것이 풍족하나, 기도가 부족한 빈혈에 걸려 있다. 기도란 95%가 아닌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최선이 아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라고 권면했다.

류 목사는 3일째 집회에서 “세상은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이 그들 심장 속에 새겨져 눈이 달린 것”이라며 “간절함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류 목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여러분의 자녀, 부모, 남편과 아내가 선교지이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자신의 죽었던 심장이 살아난 것을



2023년 뉴욕선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기독교일보

확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파”라며 “직업이 아닌 삶의 태도를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준 목사가 할렐루야대회에서 강조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날 집회에서 권 목사는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다.

권 목사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공허하고 이 땅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며 “교회의 크기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우주적 교회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집회에서 권 목사는 교회가 변화하는 원리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퇴보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때는 성장했던 전통적인 기성 교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을 향해 가고 있다”며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오래된 전통적 교회일수록 변화가 죽기만큼 어렵다.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인정하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목사는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목숨 걸기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은혜의 감각이 없는 자신을 두고 금식하며 괴로워해야 한다. 예배의 부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며 “부흥을 기도하려면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작은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간음을 사랑이라 가르치는 시대, 죄 직면하고 해결 도와야”



에이랩아카데미 김지연 대표. ©대전중문교회

에이랩아카데미 김지연 대표가 최근 중문교회의 ‘더 크리스천’ 11주차 강사로 나서 성경적 연애와 결혼, 비혼주의와 청소년 시절의 성관계, 음란물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다. 김지연 대표는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비혼주의가 만연해 있다. 비혼주의는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나 사명을 받은 게 아닌데, 인본주의적인 쾌락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총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무시하고 즐겁게 살겠다는 것”이라며 “사람은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동성애, 낙태, 성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다르다.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다”고 발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우리가 한 대상을 어떠한 오류도 틀림도 왜곡도 과장도 어긋남도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성적인 욕구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창세기 명령을 이행하는 총명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

고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총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있었다. 결혼은 창조 원형 안에 포함돼 있다. 동성애·성매매 등 결혼 외의 루트로 성관계하면 다 간음”이라고 했다.

또 “10대 때부터 성적 행위를 즐기고 결혼을 뒷전으로 하는 게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근거들이 많다”며 “헤리티지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때부터 성적인 행위를 즐기거나 간음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난해지고, 미혼모가 되고, 성병에 걸리고, 결혼이 파탄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 특히 14세 때부터 그런 일을 한 아이들은 결혼을 지켜낼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다. 간음했으면 회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간음하는 게 인권이라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성교육 강사들이 청소년도 성적 존재라고 강조하는데, 영적인 존재

인 것은 하나도 강조하지 않는다. 지킬 것을 지켜냈을 때 오히려 행복함 삶이 주어진다 것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버지니아대학교에서 3만 명을 조사했는데, 10대 때 연애 못하고 어른이 돼 버린 사람들이 훨씬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0대 때 연애는 소산이 없다. 청소년 연애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지만, 연애하면 실족하기 쉽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대들이 연애를 하면 그 중 5분의 1이 간음을 한다.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면 85%가 낙태한다. 만약에 간음하여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죄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며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죄의 삶은 지옥행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The 4th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Dallas 2023

Revival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오전과 오후는 통일전문강사들의 열린 강의로, 저녁은 부모와 MZ세대들이 찬양 Concert”

1905년 - 원산 대부흥
1907년 - 평양 대부흥

그리고,
2023년 2월 - 애즈베리 부흥
2023년 8월 - 달라스의 부흥



"WK(WITH KOREA) 챌린지"

MZ세대들의 자유롭게 하나되는 통일코리아를 표현하는 경연장, 상금 우승자(팀)에게는 \$3,000의 (제2회)복음통일 어워드를 드립니다.

* 상세한 참가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2023년 8월 14일(월)~17일(목)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문의 : 대회본부 (425) 775-7477 개최교회 (972) 395-9200 기타 (757) 634-2065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후원: 베다니장로교회

협찬: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甦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07:00
3부예배 (새벽예배) 오전 11:30 (토-일) - 현장/영상예배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밤기도회/모임 온라인 오후 8: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복임하며, 이만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고대)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주일 1부 전말예배 오전 7: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말예배 오전 9:00 어바인/시애틀/시카고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원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등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com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초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모람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삼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람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찬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w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Y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틴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과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찬양기도회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wgm.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ukmcc.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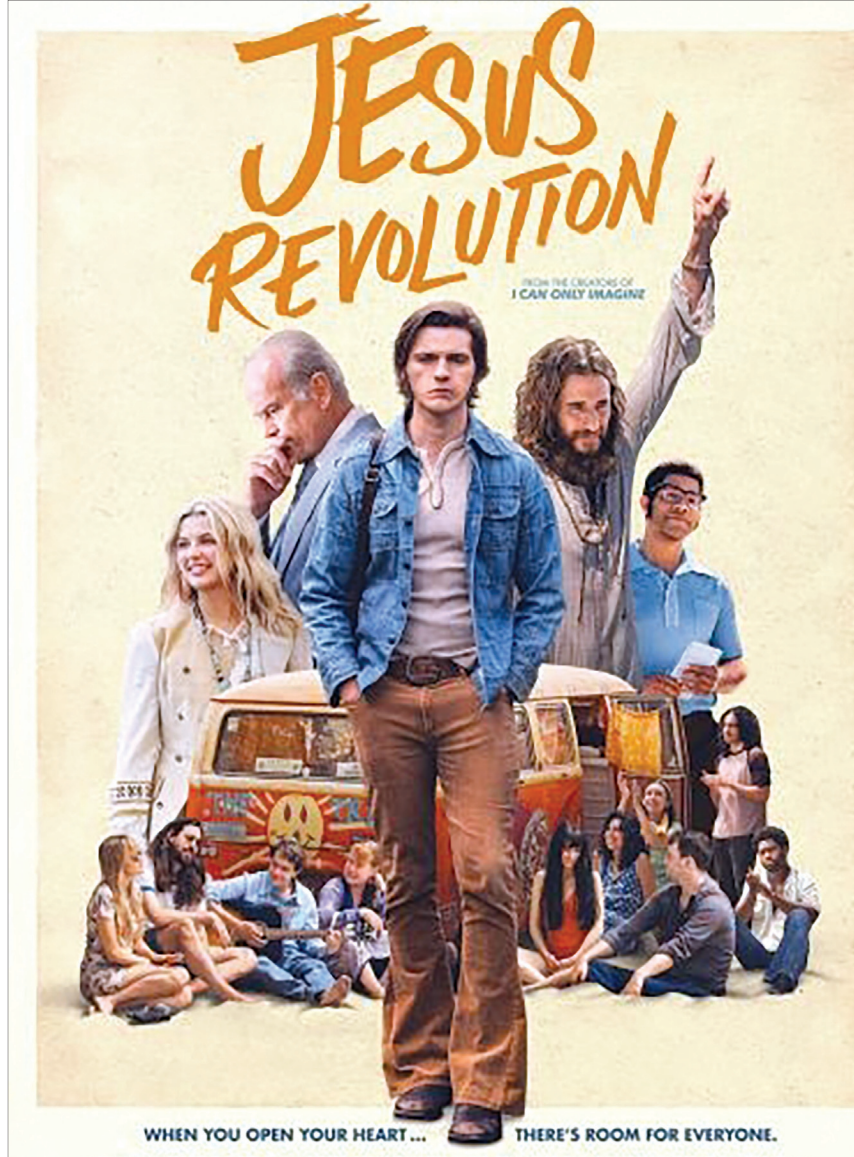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영화 '예수 혁명' , 넷플릭스 공개 후 스트리밍 5위 진입



영화 '예수 혁명'

하베스트 교회 그래픽 로리 목사의 신앙 다뤄

기독교 영화인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미국 히피 시대의 절정기에 현재 하베스트 교회 담임 목사인 그래픽 로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 '프레이저'(Frasier)에 출연했던 배우 켈시 그래머(Kelsey Grammer)가 로리 목사의 멘토였던 척 스미스 목사가 로리 목사의 멘토였던 척 스미스 목사로 출연한다.

이 영화는 올해 초 개봉했을 당시 많은 기독교 영화 팬들을 끌어모았고, 박스오피스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예산 1천5백만 달러를 넘어섰다. 넷플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5위에 도달했다.

지난 7월 로리 목사는 '예수 혁명'의 일부 장면이 촬영된 장소에서 집단 세례식을 가졌다. 로리 목사의 손녀를 포함한 4천 5백여 명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피렛츠 코브 해변'(Pirate's Cove Beach)에서 침례를 받았다.

로리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할 때부터 (영화)에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 운동은 미국의 마지막 위대한 영적 각성이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말했다"라며 "내가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많은 사람들이 '예수 혁명' 영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눴다. 이제 그들은 예수 운동과 시기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테니스 신예, 대회 우승 소감 "하나님께 영광을"

19세 미국 테니스 스타 코코 가우프(Coco Gauff)가 대회 우승 소감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우프는 지난 7월 워싱턴 대회에서 1라운드 패배를 극복하고, 지난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바달라 시티 DC 오픈 여자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인 마리아 사카리(Maria Sakkari, 그리스)를 꺾고 우승했다.

가우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워싱턴에서 첫 경기 패배 이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교회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턴 비치에 위치한 유서 깊은 교회인 성요한 선교사 침례교회(Saint John Missionary Baptist Church)를 다니는 가우프는 이전에 자신의 신앙과 교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가우프는 2019년 토너먼트에서 최연소로 예선을 통과한 뒤, 워싱턴 5회 챔피언인 비너스 윌리엄스(Venus Williams)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둬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도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

뉴욕 타임스(NYT) 매거진의 기사에

서 가우프는 그녀의 아버지 코리 가우프(Corey Gauff)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경기 전마다 딸과 함께 양 선수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8살 때부터 매 경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드린다. 우리는 정말로 승리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와 상대방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기를 바랄 뿐이다. 경기 후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가우프는 DC 오픈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서 네 번째 타이틀, WTA-500(여성 프로 테니스 협회 500) 토너먼트 첫 우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 가우프는 "이것은 정말 내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내의 모든 대회가 특별하지만, 여기에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신시내티와 다른 미국 대회에도 참가했고, 작년에 산호세에서도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DC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그녀는 새 코치인 페레 리바와 팀 컨설턴트인 브래드 길버트를 비롯한 새로운 팀의 지원을 받아 핸드 및 풋워크 등의 약점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

결승전 상대였던 마리아 사카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그녀는 훨씬 성숙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장례식서 '예수 부활' 증거한 목사, 무슬림 폭도에 구타 당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우간다 중부 와키소구 엔테베에 위치한 성요한교회.) ©성요한교회 공식 홈페이지

우간다 동부의 한 장례식에서 성경과 코란을 모두 사용하여 설교하던 목회자가 무슬림 폭도들에게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데이비슨 오키로리(Davidson Okirori, 39) 목사는 마유구 지구의 키오 마을에서 자신의 교인 중 한 명의 장례식을 집례하던 중에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았다. 장례를 치른 교인은 반니샤 나무카사(Vanisha Namukasa, 34)로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로리는 부겐게에 위치한 하나님의 언약교회(Covenant Church of God)의 담임목사이며,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오키로리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에 "교인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코란과 (알) 부카리라는 이름의 하디스집,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가서 조문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유일하고 능력 있는 부활을 증거했다"며 "동시에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일 뿐이며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게 있어 장례식은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강단이였다"고 말했다.

오키로리는 "조문객에게 설교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을 때, 설교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부르심을 느꼈다"면서 "내가 이 모든 책의 구절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자 한 청년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는 '너 이교도(kafir)야, 우리를 오도하지 말라. 만일 네가 너희 백성을 묻으러 왔다면 그를 묻겠지만, 손을 찌지

않고 코란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알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무슬림들이 '그(오키로리)를 내놓으라'고 외쳤으며, 다른 이들은 그의 마이크를 빼앗았고, 그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가져온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찢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무슬림들이 자신에게 일제히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오키로리는 증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들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돌을 던졌고, 그중 하나에 머리를 맞아 나는 쓰러졌다"며 "무슬림 남성 한 명이 내 입에 무언가를 대고 때렸고,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나는 온몸에서 피를 흘린 채로 무라고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했다.

다행히 장례식에는 무슬림보다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 폭도들을 가까스로 제지했다. 무슬림들은 현장에서 코란과 하디스를 빼앗은 뒤, 지하디스트의 구호인 "알라후 아크바르(Allāhu Akbar '신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며 인근 이슬람 회당으로 향했다고 소식통은 보도했다. 오키로리 목사는 여전히 머리와 등, 팔에 중상을 입어 회복 중이며, 기도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공격은 모닝스타뉴스가 보도한 우간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례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간다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주로 동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교회 지도자, 대법원에 영적 권위 인정 요청



칼데아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인 루이 라파엘 1세 사코 추기경. ©ACN

이라크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을 칼데아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명령을 반복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압둘 라티프 라시드 이라크 대통령은 전임자가 내린 루이 라파엘 1세 사코(Louis Raphael Sako) 추기경을 총대주교로 인정하는 법령을 철회했다.

사코 추기경은 ACN(Aid to the Church in Need)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회 권력을 훼손해 교회 재산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그는 "직령을 철회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15세기 동안 총대주교를 교회의 수장이자 교회 재산의 관리자로서 인

정하는 법령이 있었다.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교회 재산에 손을 대고 교회 당국과 별도로 관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 대법원에 자신을 총대주교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나에게 법령이 없다면 국가에 관한 한 권리가 없다. 그것은 도덕적 권위 측면에서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욕적"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광범위한 지원에 힘을 얻었다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무슬림들로부터 많은 연대의 성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에배 (1부)오전 9:00
EM에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이창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EM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오전 8:00
오전 9:45
오전 9:45
오전 11:3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영)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평일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D)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혁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아린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부인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소망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평양 최초의 감리교 남녀 성경학교 설립

한국 교회사에서 이북 지역의 신 학교에 대해서는 <평양 장로교신 학교>만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감리교에서도 서울의 <협성신학교>(1907) 뿐만 아니라 평양에 남녀신학교를 설립하였고 특히 여성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도 설립함으로써 이북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평양요한성경학원>

무어 선교사(Moore, J. Zachariah, 1874~1963)는 평양의 감리교신학교를 설립하여 반평생을 평양신학교에 몸바쳤다. 그는 이북 지역의 복음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파악하고 평양에 감리교신학교 설립을 준비하였다. 그는 1938년에 마침내 신학교 설립을 구체화하였다. 대략 120번지에 8천 평 위에 교실과 기숙사를 건축하고 학교 이름을 <평양요한성경학원>이라 하고 1938년 3월 8일에 개교했다.

이듬해 이 학교는 총독부로부터 신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총독부로부터 학교 설립자가 외국인인 아닌 조선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무어 목사는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이환신 목사가 교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퇴임 후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 당시에 일제는 1941년 감리교 연회(총회)를 해산하고 친일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일본 교단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처사는 장로교도 동일하여 일본 기독교단에 강제 흡수되었다. 또한 친일 교단 측은 <요한성경학원>을 접수하려 했으나, 교직자와 학생들이 반대하였으며 일제는 이 학교를 폐교시켰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평양 남산현교회의 여교사 주택으로 이전하여 1년간 마지막 수업을 하고 1944년 봄에 본과와 연구과를 합쳐 1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후 폐교를 단행하였다. 1938년 이후에는 신차참배 강요로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와 교회들이 자진하여 폐교를 시켰으며 일제에 순응한 학교와 교회들은 운영이 지속되었다.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라빈스 선교사(Robbins, Henrietta P)는 이북 지역의 여성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1915년 9월 20일에 평양 남산현 주일학교에서

20여명의 여학생을 모집하여 여자성경학원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923년에는 독자적으로 학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36년에는 학제를 변경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가르쳤다. 이 당시 전교생은 25명이었다. 라빈스 선교사의 정년 은퇴로 헤인즈(E. J. Haynes) 선교사가 교장직을 이어 맡았다. 1939년에는 학교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았으나, 1941년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전시 상태에서 힘겹게 운영하다가 해방을 맞았으며 그 동안에도 학교는 존속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이북 지역은 소련군의 군정 하에서도 학교는 운영되었으며 평양 요한성경학교는 폐교되었지만, 평양 여자고등성경학교는 존속되어 이를 더욱 격상시키기 위해 1946년 9월에 '성화신학교'라는 새로운 교명으로 학생 모집하였다. 이에 약 6백여 명이 지원하였다. 배덕영 목사는 1947년 10월에 서부연회 직영 신학교로 인가되었다. 1949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을 하였으나, 김일성 공산정권에 비협조적이라 배덕영 목사 교장을 납치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성화신학교>

이어서 김일성 공산 정권은 평양 장로교 신학교와 통합하도록 강요를 하였다. 이에 박대선 교장 목사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압력에 의해 결국 '평양기독교신학교'라는 교명하에 통합되었다. 이 학교는 1950년 7월 5일에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를 당하였다. 이 학교의 1,2회 졸업생은 모두 31명이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이북 지역에 남아 사역을 하다 순교당한 일부 목사들이 있었으며 대부분 남으로 내려와 이남 지역의 복음화에 헌신하였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문학자(1) 암브로시우스의 <성직자의 의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로마의 주교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지만, 그는 늘 겸손했다. 불의한 정치나 자본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다. 반면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보물이며 교회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했다. 그는 나눔과 섬김을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사역자였다. 그는 로마 황제보다는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벗이 되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40권의 저서를 남겼다. 암브로시우스가 저술한 대부분 책은 그의 설교를 속기로 기록해 편집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완성된 책이 <6일 창조론> <죽음의 선함에 대하여> 등이나 <나뭇 이야기> <토빗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설교 형태다.

암브로시우스는 목직한 교리서도 남겼다. 이런 교리서는 이단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학을 세우는 논쟁자료였다. 유사파와 아리우스파를 대항하여 교리를 옹호한 <신양론>이 유명하다. 당시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 어떤 것쯤으로 여기는 이단과 잘못된 신앙인들을 위해 성령의 완전한 신성과 인격성을 강조한 <성령론>도 그의 수작이다.

암브로시우스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는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며 수도원 생활과 경건 훈련을 강조했다.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으로 밀라노와 주변에 많은 수도원이 생겼다. 당시만 해도 수도원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수도사이면서 감독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들이 교회의 국교화와 타락을 막은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암브로시우스도 도시 안에서 수도원을 건립하고 교회와 연계된 수도 생활의 모범을 보였다.

아울러 암브로시우스는 도덕적인 삶의 원칙과 교훈을 담은 책도 썼다. 그는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려고 <과부론> <동정론> <동정예찬> 등을 썼다. 이런 윤리서들은 스스로가 원했던 금욕적인 생활의 성경적 근거와 방법들을 설명한다.

암브로시우스는 인문학을 공부했고 법률가가 되었고 공직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세례받은 지 7일 만에 안수를 받았고, 성직자가 된 후에 성경공부와 신학공부를 통해서 성직자의 삶을 배웠다. 그는 훌륭한 성직자로 성장했고 훌륭하게 성직을 수행했다.

이런 암브로시우스가 후배 성직자들을 위해 쓴 책이 <성직자의 의무>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책에서 성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덕행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책은 성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 전체의 도덕 규범을 제시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에 바탕을 둔 보편적 그리스도교 윤리 규범을 위해 <성직자의 의무>를 썼다.

이런 점에서 <성직자의 의무>가 교회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이 책은 '최초의 그리스도교 윤리 교과서'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다. <성직자의 의무>는 교부 시대를 지나 중세를 거치면서 성직자와 공직자의 고전이 되었다. <성직자의 의무>의 핵심 주제를 흔히 올바른 과이로움이라고 본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이롭다는 암브로시우스의 논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히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세심한 가르침을 남겼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아울러 그는 공물을 중시했다. <성직자의 의무>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정의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담았다. 그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분배정의,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며 현대사회 교리의 원천이기도 하다.

암브로시우스는 <성직자의 의무>를 쓰면서 고대 로마 정치가

키케로의 <의무론>을 빼대로 삼았다고 한다. 키케로는 암살당하기 1년 전에 자기 아들 마르쿠스를 위해 <의무론>을 썼다. 키케로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키케로는 아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태와 쾌락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반면 암브로시우스는 <성직자의 의무>를 통해서 아들과 같은 후배 성직자들에게 성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행과 사회적 책무를 가르쳤다. 키케로의 <의무론>의 틀에다 고전 철학과 윤리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 성직자의 윤리 교과서 같은 책은 성직자가 지녀야 할 품성을 성경의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평가받는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책에서 목회자의 임치를 강조한다. 임치야말로 인간의 근본 조건이니 두꺼운 낚싯으로 파렴치하고 몰염치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매서운 당부를 한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따끔한 돌직구이다.

암브로시우스의 <성직자의 의무>는 성직자와 공직자를 아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이자 서양 도덕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지성인이려면 기꺼이 따라야 할 덕목인 셈이다. <성직자의 의무>는 암브로시우스의 '행복론'을 보여준다. 인간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세상 철학과 완전히 구별되는 차원 높은 신앙 행복론이다.

나아가 <성직자의 의무>는 또 암브로시우스의 '우정론'도 담았다. 암브로시우스는 키케로의 <우정론>을 참고로 그리스도인 우정론을 썼다.

키케로는 라일리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위들인 판니우스와 스키아블라에게 자신의 친구 스키피오와의 우정에 대해 말한 것을 스키아블라가 키케로에게 전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우정론은 암브로시우스의 우정론과 마테오리치가 쓴 우정론이 유명하다. 이 작품들은 추후에 상론(詳論)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중회원, 기독교대학(역사), 목회학석사(M.Div.)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신학교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including: Acts Global Church (박은성 담임목사), Angel's Church (이미애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한주봉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이현욱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송재봉 담임목사), LA하나교회 (박지상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JOE HONG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ISAIAH LEE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장경호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제임스킴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남상권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김상현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김창근 담임목사), 놀익장로교회 (차권희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강은덕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김영일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정용암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신용석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정달성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김명구 담임목사), 방주교회 (서민수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장현석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지동근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윤혁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곽태규 담임목사), 선민교회 (장동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임상훈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이석기 담임목사), 성암교회 (김요한 담임목사), 예심교회 (정찬균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김지연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표희곤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류연주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김성규 담임목사), 초대교회 (양수용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조인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류광환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정하이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오홍성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양국민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김요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양홍규 담임목사)

강준민 칼럼

환대 속에 감추인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한편의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 글을 생각합니다. 글감을 찾느라 늘 깨어 있습니다. 글감이란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나 소재를 의미합니다. 마치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늘 좋은 재료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일찍 만난 글감은 “환대”입니다. 환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있습니다. 환대는 배우고 익혀야 할 삶의 예술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환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은 “환대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

대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환대를 받은 경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환대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환대는 시선의 마주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모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경탄하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환대도 은총의 사건입니다. 환대받고, 환대를 베푸는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 저는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읽었던 시 한편이 제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의 꽃>에 수록된 고은 선생님의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던 꽃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꽃입니다. 제가 한창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꽃을 내리막길에서

본 것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려가는 길에 깨달은 것입니다. 환대는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시선과 함께 새로운 각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마주침입니다. 마주침을 통해 환대가 시작됩니다. 모든 만물은 환대받을 때 빛을 발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환대받을 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절의 상처는 환대를 통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작은 자, 어린이, 죄인을 환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환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환대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른 교회로 이전할 때 건강한 성도로 이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을 한 분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상처받을까 두려워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환대는 복을 받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함으로 복을 받았습니

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환대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수벳 여인이 엘리야를 환대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을 환대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절을 싫어하지만 때로는 거절이 더 놀라운 환대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거절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뼈아픈 거절이 복된 환대를 낳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버림 받으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절 당하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환대의 지혜를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단테의 신곡 Part 1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단테의 신곡을 아십니까? 단테의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리, 13-14세기를 살았던, 이탈리아 로마의 시인으로써, 신곡(La Divina Comedia, Divine Comedy)이라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신곡은 저자인 단테 자신이 살아 있는 몸으로 일주일 동안 저승의 세 구역,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짧게 줄거리를 설명하면, 주인공 단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기 이전, 의인들이 머무는 림보라는 곳에 머물던 철학자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을 구경하고, 마침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릭체가 먼저 가 있

는 천국에 올라가 그녀와 재회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단테의 신곡을 읽게 된 것은, 카톨릭적 세계관, 천국관, 지옥관, 신앙관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단테는 카톨릭 사제가 아니었기에 카톨릭적인 관점에서든 맞다고 볼 수 없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쉽게 풀어 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몇 가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현대 개신교 교계에 퍼져 있는 구원론, 구원에 관한 관점이 카톨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면, 림보는 예수님을 모르던, 예수님에 관한 예언조차 없던 시대에 태어나는 바람에 하나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조차 없었으나, 나름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인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구교에서 신교가 분리되기 전, 신학자들과 신자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구체적인 계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도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머무는 장소입니다. 책에는 지옥에도 동성애자들이 있고, 연옥에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머무는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머물게 된 것이고, 연옥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정화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카톨릭의 림보설, 연옥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이론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당시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 같은 비성경적 이론을 주장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기에 는 지나친 면이 있고, 지옥에 갈 법한 사람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또 지옥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상상력이 동원된 인간적인 염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개신교의 구원론은 카톨릭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를

다녔으니,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카톨릭의 림보와 연옥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이런 종류의 죄를 지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죄도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어 바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죄로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이 카톨릭의 그것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scan me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게
이리 주문해 주세요!

슬라방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기꺼이 모이기를 힘쓰는 일류 신앙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사무실에 어항을 갖다놓고 금붕어를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어항을 놓았더니 습도 조절도 되어서 좋다고 하면서 목을 많이 쓰는 저를 위해 제 사무실에도 어항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 어항에는 어떤 금붕어를 집어넣어도 비실비실하고 오래 못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제 어항의 비실비실한 금붕어를 가져다가 본인 집의 어항에 집어넣었는데, 그 금붕어들이 얼마 안가서 힘을 회복하더니 다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금붕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항이 문제였었습니다. 그 일로 크게 깨달은 은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항과 같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열한 영적전쟁이 있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5)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상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잡혀가기에, 각자 흩어져서 믿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아니야! 핍박이 있을수록 더 모여야 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모이기를 힘써야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많아집니다. 안 모이려고 하니 교회마다 점점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얼른 드리고 도망치듯 가는 신앙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영적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집에서 하는 기도가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선교 하는 것과 지금 우리 교회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열정을 모아 행하는 선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천국의 구원을 위해 좀 과도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좀 과도하다고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일류 신앙이 되려면 기꺼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외로운 그리스도인 만큼 비 성경적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혼자 고독할 때도 있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돕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데 일이 내게 너무 좋고 은혜가 되어서 열심히 나오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아직 일류는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함께 하면 힘을 얻을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Not I But Christ!의 심령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1류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김재성 교수 칼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혜택들 (1)



김 재 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진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게 역사하시며,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신령한 축복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표현했다. 일반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에 의해서 이뤄지는 역동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역동감이 넘치게 되며, 성도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갖가지 체험들을 갖게 된다. 이 연합은 값없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요, 말씀과 성례들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곳에는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공급된다.

1.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행 11:25, 26:28),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에게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과 축복들에 대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맛보고, 알게 된다 (요 17:3).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나가게 하신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성령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한 자들의 영적인 교통을 이룩해 나간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압축한 교훈이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주님 안에”(in the Lord) “그 안에”(in him) 등 164회나 쓰여진 구절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우리 인간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대조되어지며, 이들 두 가지 개념들로 확연히 나누어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5-22절, 45-50절에서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 (고전 15:20-22).

불신자들의 운명은 그들이 속한 첫 사

람 아담의 죽음에 연합되어져 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마지막 아담의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누구인가, 즉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성도의 구원을 가르치는 다양한 단계들과 교리들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구도에 해당한다고 머레이 교수는 성경적 논증을 제시하였다.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이 사악한 세대”에 우리가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인간성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묶여 있음을 의미한다 (엢 2:2).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는 자이며, 어두움과 격리된 자아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이기도 하다 (롬 1:21-32, 갈 5:19-21).

이런 인류의 두 대표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연합체에 대해서 대조해 보는 이유는 성경 본문들 속에서 “연합”(union)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딕 박사는 성경 안에 세 가지 연합의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삼위일체 세 위격들 사이의 연합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들 사이의 연합이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그의 백성들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이다. [계속]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희용내과

HEE-YONG D.B. MEDICAL CLINIC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희용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Z-UP 전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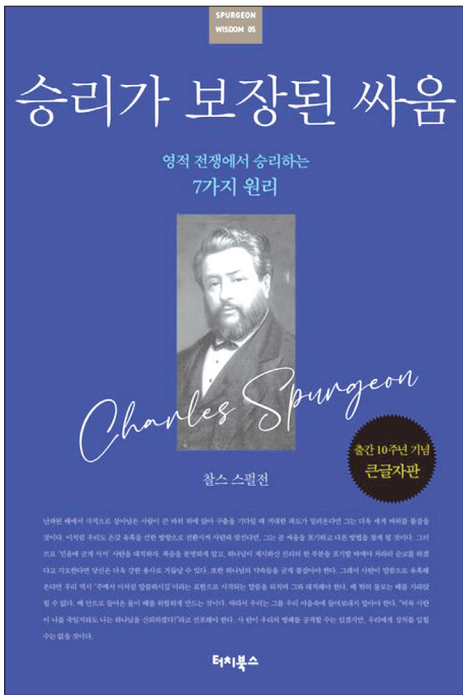
For the Spirit & Body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리



움'이라고 확신하면서.
 영어 제목이 'Spiritual Warfare'인데, 실제로 이런 이름의 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개정된 <응답이 보장된 기도: 하나님께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7가지 기도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책은 수천 편에 이르는 스피전의 설교 중 영적 전쟁에 관련된 핵심 설교를 골라 현대 그리스도인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2014년 출판된 같은 제목의 책을 개정한 책이다. '출간 10주년 기념 큰 글자판'으로 개정되어 가독성을 높여주었다.

총 7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다. ①사탄의 정체: 울부짖는 사자 ②사탄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 ③사탄의 계획에 맞서는 방법 ④영적 순례자들과 전사들을 위한 신발 ⑤믿음의 방패 ⑥성령의 검 ⑦그리스도, 사탄의 정복자.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다룬다.

스필전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를 집요하게 붙들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청자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풍성하게 제공하는 설교자다. 이는 청교도 저자와 설교자의 특징이기도 하다.

스필전이 청교도의 영성을 닮은 또 다른 부분은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 중심에 직접 호소하는 점이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수치를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51쪽)".

스필전은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애쓰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하신 병기를 갖춰야 한다고 설득한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할 때가 많다.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가족, 동료, 교인, 이웃 나아가 원수와 싸우느라 바쁘다. 수평적 차원에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싸워서 승리한다 해도, 수직적 차원에서 이것은 패배다.

스필전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대상이 악한 육체, 세상, 마귀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복음에서 온다고 말한다.

복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견고한 신발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날아드는 마귀의 화살로부터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성경이 예고한 대로 종말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주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치열해진다는 의미이기



©Zac Durant/ Unsplash.com

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검, 말씀에 능숙해져,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데 실패한다. 주요 신학 노선 중 하나인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을 한낱 인간의 책으로 보고 말씀의 참 의미를 경시한다. 독자의 견해를 하나님의 주장보다 앞세운다.

그러니 어떻게 마귀와 세상의 거짓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무디고 멍뚫힌 겹으로 싸우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무시하

면 영적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맛볼 수 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스피전이 목숨을 걸고 전파한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라야 할 것이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렇게 우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
 찰스 스피전 | 강산 역
 터치북스 | 244쪽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라!”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리라!”

영적 전쟁의 본질을 대면하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스피전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한 마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딤후 2:3)”라고 불렀다. 병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복무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나 전력으로는 마귀를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찰스 스피전(1834-1892)은 설교의 황제로 알려진 19세기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 목사로,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승리가 보장된 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의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 2:22

He reveals deep and hidden things; he knows what lies in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

DANIEL 2:22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공공 미술 유형과 공동선 추구

문화 영역, '돌봄'이라는 은혜로운 부르심의 장소

예천 신풍미술관, 할머니 그림학교
농촌 할머니들 그림 가르치며 섬김
좋은 삶과 번성하는 문화로 번영을
문화 돌봄, '생성적 사고' 실천 비례

공공성을 표방하는 미술 중에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과 같은 페미니스트 미술운동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세로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유형도 있다. 지금까지 15년째 개 최하고 있는 경북 예천에 소재한 신풍미술관의 '할머니 그림학교'가 그중 하나이다.

'할머니 그림학교'는 그림을 접하지 못한 할머니들에게 창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색다른 체험시간을 갖게 하였다. 평균 연령 80세 이상인 할머니들은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점차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되찾아간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성은 관장의 말에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시골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웃음이 없는 할머니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림학교를 여니 '우리 같은 밤버러지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며 그림은 안 그리고 간식만 드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다들 그림에 푹 빠져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이성은 관장은 농촌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면서, 참여자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가족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할머니들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는 감회는 남다른 것이다.

이 관장이 외딴 곳에 미술관을 세웠을 때 주위의 우려도 컸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의 진심을 알고부터는 모두 그의 편이 되어주었다. 크리스천인 이성은 관장 역시 삶과 예술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게 된 것을 커다란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장 칼뱅(Jean Calvin)은 문화의 가치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것을 선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훌륭한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간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의견을 펼쳤다(『기독교강요』, II권, 2.16).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구상하면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가이자 저술가인 마코토 후지무라(Makoto Fujimura)는 '문화

돌봄(Culture Care)'을 제안한다. 후지무라는 문화를 돌보는 일이 필수적이라면서, 프레드 던백을 소개한다.

그가 다녔던 공장은 구리선을 제조하는 제철회사였는데, 공장 폐수를 그대로 허드슨 강에 흘려보냈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는 오염을 단속하는 규정이 미비해 공장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여 강물을 오염시키는 일이 잦았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느낀 프레드는 여러차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회사를 고소하였다. 그는 회사로부터 말단으로 좌천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동안 모은 자료와 증언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 오늘날 300만 마리의 농어가 허드슨 강을 헤엄칠 수 있게 된 것은 프레드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후지무라는 기술하고 있다.

후지무라는 여기서 프레드의 기독교적 '침지기의식', 즉 생애의 문화적 관리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는 예술가도 '문화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만약 오직 자기 표현을 위한 예술을 하는 대신 누군가를 기꺼이 섬기고자 한다면 어떨까? 세상이나 우리의 관객들이 우리에게 동의하거나 박수쳐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겸손하게 협력하고 봉사에 헌신한다면 어떨까(Makoto Fujimura, <컬처 케어(Culture Care)>)"라고 제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문화를 '다스리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스리라'는 것이 약탈하고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좋은 관리인은 사육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공동체의 번영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 전제로 '좋은 삶과 번성하는 문화'를 가능케 할 조건을 식별하고 배양할 '생성적 사고'가 요구된다.

'생성적 사고'에 대해, 후지무라는 자신의 농장에 있는 '웅장하고 오래된 배나무'를 들어 설명한다. 이 나무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자라났는데, 씨앗이 그것을 따듯하게 품어주는 땅을 만나 조그만 싹으로 바뀐다. 시간이 흐르며 보살핌을 받아 그것은 완전한 생장을 이루었고, 모든 면에서 원래의 씨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나 중국에는 생성적 잠재력으로 충만한 여러 층위의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늘과 보금자리, 꽃과 열매를 주며 침식을 방지할 수 있게도 하고 목재를 제공할 수도, 멋진 풍경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된다.



예천 신풍미술관 할머니 그림학교 모습. ©미술관 제공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문화 돌봄'은 '생성적 사고'의 실천과 비례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 돌봄이 궁극적으로 생성적 문화환경을 가져다줄 것인데, 이는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즉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치유,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 더 깊은 대화를 위한 문맥의 형성, 영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차원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 돌봄'은 비단 예술가뿐 아니라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누구든 '공동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후지무라의 생각이다.

'할머니 그림학교'는 앞에서 말한 '문화 돌봄'의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만일 그 지역에서 '할머니 그림학교'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성은 관장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이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종교처럼 깊은 영적 깨달음을 안겨주지 못하지만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으며, 양질의 문화는 세상의 부식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삶에 종교의 구획을 따로 그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셨다.

신약 저자들도 주변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세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격려한 바 있다(롬 12:2).

기독교 예술가에 있어 문화의 영역은 쟁취하고 장악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할 정원이며 '돌봄'이라는 은혜로운 부르심의 장소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CELLS 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